

**한·중산업협력위원회**

**항공기 분과위원회 2차회의 개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구체 논의**

한·중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공기분과회의 제2차회의가 지난 4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견우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을 단장으로한 한국측 대표단 25명과 탕수시아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경제정책협조사장을 단장으로한 중국측 대표단 20명은 회의 일정동안 회의와 산업시찰을 통해 협력 분위기를 돈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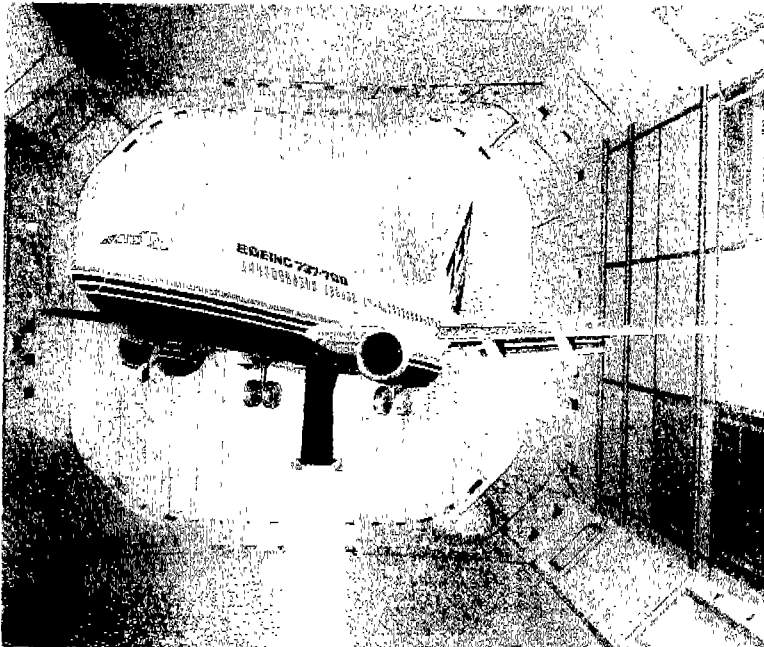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주관업체가 제3협력선과 기타 아시아 협력선을 공동으로 선정하게 하고 조립장및 공동설계사무소 위치등 사업관련 제반사항을 포함한 상세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양국 정부에 보고기로 했다.

개발기종은 제1차회의에서 합의한대로 100석급을 추진기로 재확인 했으며 기타 판매전략, 판매대수, 생산원칙, 합작회사 조직등 기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 합의를 보았다.

한편 제3차 분과위원회는 오는 96년 상반기중 중국에서 개최기로 했다. <관계기사 19Page 참조>



**대한항공 737-700 공동개발계약 체결**



B737-700 축소모형의 저풍속동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한항공은 보잉사가 개발중인 차세대 첨단항공기 B737-700의 날개 부품을 설계 및 생산기로 합의했다고 4월 28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개발을 담당하는 부위는 Flap Support Fairing등으로 오는 2000년까지 1억1천만달러, 2000년 이후에는 약 2억달러어치를 생산할 계획이다.

B737-700은 보잉사가 경쟁사인 에어버스의 A320과 맥도넬더글라스사의 MD-90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항공기이다.

737-700 1호기는 97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며, 대한항공은 96년4월부터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항공은 네덜란드 해군으로부터 對잡수함 정찰용 초계기 P-3C 엔진 창정비용역을 수주했다

## 삼성항공 네덜란드 P-3C 창정비 계약 체결

삼성항공은 국내 처음으로 네덜란드 해군 對잡수함 정찰용 초계기(P-3C)에 장착되는 엔진 창정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항공은 올해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T56-A-14 엔진 20대 분을 5백만불에 창정비 하게된다.

네덜란드 해군에서는 기존 엔진 창정비업체인 오그마社 및 선진입찰 참가업체와 비교평가를 위해 지난 1월 삼성항

공을 방문하여 품질, 기술, 경험, 조직 등 엄격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삼성항공에서 창정비되는 P-3機는 美록히드社 제품으로 美 앨리슨社의 터보프롭 T56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삼성항공은 이미 동종의 엔진을 창정비 생산하고 있다.

## 해외 3대뉴스



## 항공기시장 가격파괴

보잉사가 최근 항공기의 수주가격을 대폭 인하하자 맥도널 더글러스와 유럽의 에어버스까지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함에 따라 항공기업계에서도 「가격파괴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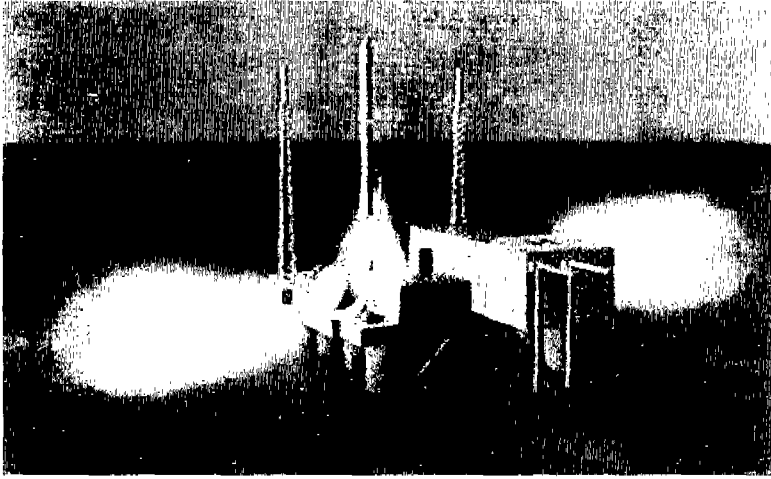
윌스트리트저널지는 4월 24일 보잉사가 앞으로 자사제작 항공기의 실제공급계약가격을 현재보다 평균10%정도 낮추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15~3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잉이 최근 스칸디나비아항공(SAS)과 신형 1백인승 737-600항공기를 공식가격(최초협상에 제시

하는 가격)보다 38% 할인한 대당 2천만달러에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보잉은 이미 지난 2월 이 기종의 공식가격을 5%(1백50만달러)인하했으며 지난달에는 항공기제작기간중의 인플레이를 감안, 인도시 추가되는 평균 6%정도의 가격인상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었다.

경쟁업체인 맥도널 더글러스와 에어버스도 보잉의 가격인하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가격파괴에 가담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미 SAS와의 협상에서 맥도널 더글러스는 95인승 MD-95의 가격을 목표가격보다 12%낮춰 대당 2천2백만달러에, 에어버스는 1백20인승 A-319를 목표가격보다 23%낮춘 3천만달러선이하로 제시했었다.



보잉사는 러시아와 합작으로 석유추진을 이용한 해상발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보잉사 위성발사사업 진출

보잉사가 러시아의 로켓제조업체 3개사와 손잡고 인공위성 발사사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지가 4월 17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잉사는 러시아의 로켓제조업체 에네르기아사, 우크라이나의 로켓제조업체 유주노에사, 노르웨이의 조선업체 쿠비에르나사등과 미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위성발사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보잉사는 초기에 연간 5건의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며 가동식 해상발사대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식은 육상발사에 비해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잉과 항공우주기술에서 앞서 있는 러시아기업들이 합작으로 위성발사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현재 유럽의 아리안로켓이 60%를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 시장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 네덜란드 AH-64D 아파치 헬리콥터 구입

네덜란드 공군과 정부는 유러콥터사의 Tiger 헬기를 제치고 미국 맥도넬더글러스사의 AH-64D 아파치 헬리콥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7억달러에 상당한 이번 구매 결정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의 정치계에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만일 아파치헬기 30대를 구입하는 이 결정이 네덜란드 국회의 승인을 얻게되면 MD사는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같은 결정은 향후 영국의 공격헬기 도입계획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영국의 구매물량은 3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최종 도입결정은 5월이나 6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96년까지 미국 육군소속 AH-64A형 10여대를 네덜란드에 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 네덜란드 공군이 도이키로한 AH-64D 아파치 헬리콥터. Longbow 레이더는 장착하지 않을 예정이다.